



“國家次元의 資源開發노력 필요”

資源産業 활성화에 앞장설터

『大韓鑛山學會를 설립할 당시인 1963년에는 경제사회발전의 기초가 되는 모든 資源이 鑛山개발로 부터 얻어졌으므로 광산개발 위주의 학회로 발전시켜왔으나 오늘날은 과학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다양화로 새로운 분야의 학술활동이 불가피하게 되어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素材광물, 자원경제등을 총망라하는 韓國資源工學會로 명칭을 개칭하게 된 것입니다』

韓國資源工學會 朴佑炳회장(國會議員·民主黨)은 학회의 명칭 개칭동기를 이같이 밝히면서 광업을 사양산업이라고도 하고 있지만 資源은 거의 모든 산업의 原料이기 때문에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資源貧國인 우리나라로서는 國內資源활용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海外資源의 개발과 활용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의 수집과 아울러 자원개발 및 활용기술의 확립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朴회장은 우리나라는 83%를 해외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니만큼 해외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자원시책을 수립하여 자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술축적이 미흡한



朴佑炳 회장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정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자원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도 우리의 자원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든 지원체제를 구축해 놓을 작정입니다』 朴회장은 기존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우선 광업위주의 편성에서 석유, 가스, 소재광물, 자원경제 등 여러분야를 흡수 재편하여 학술연구활동을 강화하고 學會誌도 학술위주에서 벗어나 산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알찬내용으로 편집체제를 일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다.

특히 학술전문위원회에 海外資源부문을 설치해 무한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 중국, 알라스카등지의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보를 제공하는등 産學연계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한다.

학회는 산하에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탐사 ▲개발 ▲암반역학 ▲자원처리기술
▲광산보안 ▲교육 ▲광업경영전문 ▲에너지경제 ▲석유 ▲석재 ▲해외자원등 모두 12개분야의 학술전문위원회를 두고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제가 國會에 몸담기전 경영일선에서 뛰다보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학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은 물론 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학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朴회장은 자원산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고 장기계획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Survey를 한 다음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자원수요에 대비한 장기적인 자원배분계획을 수립하는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원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에너지자원은 국제정세에도 상당히 민감한 분야이므로 國家安保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가 값이 싸다는 이유로 무조건 選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제2의 Oil Shock가 밀어닥치기 전에 순수 우리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朴회장은 우리나라는 도자기·시멘트의 원료인 고령토, 石材자원등이 풍부하므로 이의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겠다고 덧붙인다.

현재 우리나라엔 고령토정제공장이 없어 原鑛 전량을 수출하고 있는데 精製기술확보로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유망산업분야로 각광받을 수 있으며 또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석재산업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수반된다면 유망 수출산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朴회장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열, 地熱, 바이오에너지등이 代替에너지源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들 부문에 대한 집중개발도 촉구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태양열에너지는 대체에너지원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에너지원이며 메탄가스등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원도 잠재력이 많은 분야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朴회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개발 예산이 1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20억원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대체에너지개발에 대한 투자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한다.

朴회장은 지난해 私財를 털어 재단법인 형태의 「資源産業研究院」을 설립, 정부의 지원시책에 대한 평가작업은 물론 합리적인 자원수급방안 연구, 해외자원정보발굴등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朴회장은 우리나라 자원산업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설립한 자원관계 전문연구소이니만큼 學會와의 연계를 통해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한다.

『韓國資源工學會는 이제 갓 태어난 햇병아리나 마찬가지로입니다. 하지만 鑛山學會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지난 26년간의 年輪을 바탕으로 나날이 변모하는 시대상황속에서 학문과 산업의 발전속도에 맞추어 다양한 학문체계를 수용하여 우리나라 자원공학의 발전은 물론 자원개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작정입니다』 朴회장은 회원들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權光仁記)